

200자 안내

筆洞情談

김태길 외 지음

철학자 김태길, 한학자 임창순, 경제인 유창순, 시인 조병화, 변호사 홍남순, 군인 한신, 과학자 이태규 등 각계 원로들이 우리시대의 문제를 진단한 대담기사를 모은 책. 매일경제신문에 8개월여동안 연재됐던 것을 보완하여 한권으로 묶었는데, '원로 없는 시대의 원로'들의 발언을 통해 오늘의 우리가 위치한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를 절감할 수 있다.

매일경제신문사 / A5신 / 412면 / 4800원

황금의 고삐

프랑스와즈 사강 지음 / 金仁丸 옮김

「슬픔이여 안녕」 「브람스를 좋아하십니까」 등으로 국내독자들에게 친숙한 사강의 신작소설. 재능은 있지만 인정받지 못한 음악가인 남편 '뱅상'과 부유한 은행가의 딸인 아내 '로랑스'를 중심으로, 뱅상의 성공에 따른 부부간의 갈등 끝에 마침내 차가운 콘크리트바닥에 스스로 몸을 던져 자살하는 로랑스의 이야기가 사강 특유의 정제있는 문장 속에 펼쳐진다.

문학사상사 / A5신 / 274면 / 3500원

세계사진사개요

이안 제프리 지음 / 이순휘 옮김

1930년대 후반 사진의 네가포지 프로세스를 개발한 영국의 폭스 탈보트에서 현대의 대가들에 이르기까지 사진의 역사를 '논평적 관점'에서 포괄하고 있는 제프리의 「Photography, A Concise History」(1981) 우리말 완역본.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사진적 시각의 고유성과 사진매체의 특성을 시대상황과의 관련문학 아래 체계화했다.

행림출판 / A5신 / 306면 / 7000원

한반도의 군비통제

신정현 지음

한반도 군비통제의 이론과 개념, 방향 등을 원론적 차원에서 검토한 이론서. 크게 세부분으로

로 나눈 가운데, 군비통제의 일반이론과 사례 소개,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된 이론적 모형의 탐색, 군비통제를 포함한 '평화레짐'의 구축 및 통일을 위한 국제환경 조성 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예진출판 / A5신 / 318면 / 4200원

그리운 자작나무

구드룬 파우제방 지음 / 도경재 옮김

현대독일문단의 저명한 여류작가 파우제방의 작품집. 동화적 투명함 속에 사랑의 평화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담은 소품들이 주류를 이루는데, 「아름다운 세상은 너에게 있었다」 「추억은 푸른 기차를 타고」 「사랑의꽃병에 자작나무 가지들」 「우리 반의 전쟁과 평화」 「마카로니 대식가」 「아프리카에서 온 숙녀의 방」 등 모두 17편의 '작은 이야기'들이 수록돼 있다.

푸른숲 / A5신 / 194면 / 3000원

후회없는 고독

조병화 지음

한국시단에서 가장 많은 시집을 펴내고 있는 것으로 잘 알려진 원로시인의 제34시집. 통상의 시집들과는 달리 시인 자신의 유년기와 청소년기, 노년기에 대한 산문을 자료사진 및 육필원고와 함께 앞머리에 실고, 新作詩들을 뒤편에 모아 실었다. 때시편 말미에 작품이 씌어진 연월일을 부기해 이채롭다.

미학사 / A5신 / 178면 / 10000원

붓다, 마르크스 그리고 하느님

트레버 링 지음 / 김형찬 옮김

마르크스주의와 종교의 상관관계를 천착하는 한편, 사회주의권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억압받거나 병존하는 종교들의 모습을 깊이있게 파헤친 책. 서구와 전혀 다른 전통을 가진 불교와 기독교의 만남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불교·기독교·마르크스주의 등 인간행위의 종교적 측면을 조명하고 있기도 하다.

고려원 / A5신 / 256면 / 3800원

빈들에서 줍다

주경화 지음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세일즈맨이자 일제시대에는 여사장으로, 그리고 여순경 등 파란많은 곡절의 삶을 살았던 최진섭씨를 주인공으로 한 실화소설. '퇴색되지 않는 추상' '기나긴 겨울' '이 비 그치면' '차오르는 빛' '때가 차매'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작은 입으로' 등 7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신의 役事를 조명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신앙고백으로도 읽힌다.

규장문화사 / A5신 / 218면 / 3500원

우리는 불교가족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김동리)가 주관한 제8회 불교어린이글짓기현상모집의 입상작 84편을 한데 모은 책. "슬플 땐 염주를 만져 봐 / 하고 가셨던 어머니"를 그리는 동시「어머니」를 비롯해 '어린이불자'들이 자기생활을 이야기하고 노래한 시와 산문들을 '법회 가는 날' '거울을 닦으세요' '발우공양' '생일불공' '할머니의 절' 등 7부로 나누어 묶었다.

진영사 / A5신 / 160면 / 2000원

큰미래 그리기

박석준 지음

성공적인 삶과 '큰 미래'의 구상에 도움이 될 만한 인생의 지침을 '큰 인물' 170인의 이야기를 통해 제시한 책. 이순신과 한명회에서 노자나 공자, 칸트와 비스마르크에 이르기까지 동서양 유명인사의 에피소드를 소개함으로써 그 에피소드들에 담긴 성공적인 삶을 위한 지혜를 제공한다. 방송용으로 씌어졌던 원고를 추려 한권으로 묶었다.

오늘 / A5신 / 270면 / 3500원

古事記(중권)

魯成煥 역주

「일본서기」와 더불어 현전하는 最古의 일본역사서로 일본고대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필수적인 사료로 평가되는 「고사기」의 우리말 역주본 둘째권. 신들의 활약상을 주로 다룬 상권에 이어 이 중권에는 초대천황인 神武에서 應神에 이르기까지의 '인간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한일고대사 연구의 유용한 기록들이 눈에 많이 띈다.

예전사 / A5신 / 288면 / 5500원

거울속의 수채화

프랑시스 잠 지음 / 정태철 옮김

「말테의 수기」를 통해 릴케가 「산속에 조용한 집을 갖고 있는 시인」이라고 표현한 바 있는 프랑시스 잠의 작품 3편을 한권에 모았다. 1901년에 처음 출판된 소설 「클라라 텔레부즈」를 비롯해 정열적인 소녀의 이야기 「알마이드 데트르몽」, 몸이 불편한 소녀의 이야기 「뽀 다니스」 세편이 수록돼 있는데, 열렬한 '처녀예찬론자'로서의 잠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서원 / A5신 / 230면 / 3000원

기초교회공동체

A. 바레이로 지음 / 이기우 옮김

복음의 핵심으로까지 일컬어지는 '가난한 이들'에의 선택'을 브라질 지역교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한 책. 라틴아메리카에서의 민중사

목운동 전개과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가난한 이들의 복음화가 지닌 궁극적 의미와 가치를 낱낱이 해부함으로써, 기초교회공동체에의 참여가 갖는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성바오로출판사 / B6신 / 144면 / 2200원

이제 거진 어른인걸요

강민경 외 지음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5명의 청소년들이 세달 동안의 공동토론을 통해 나름대로의 주제와 소재를 추려내 창작한 청소년산문집. 사회와 어른을 향한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친구와의 다정한 속삭임과 진지한 대화를 담고 있는데, '우리집 우리학교' '우리가 사는 세상' '깨어나는 우리들' 등 3부로 구성되어 있다.

동녘 / A5신 / 230면 / 3000원

희망의 땅 좌절의 늪

김남식 지음

우리에게 희망의 땅이기도 하고 좌절의 늪이기도 한 미국사회의 면면을 저자 (美 윌링톤 한인교회 목사)의 미국생활에 근거해 파헤친 체험론적 미국학. 「미국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미주산책, 희망의 땅인가 좌절의 늪인가」 「목회 여화, 그대 영혼을 위하여」 등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국을 통해 오늘의 한국을 비춰보는 비교론적 조명이 돋보인다.

한국로고스연구원 / A5신 / 316면 / 4000원

간도독립운동비화

洪相杓 지음

1910년대 후반 간도의 항일독립운동단체 '국민회'에 참여했던 저자가 자신이 관여했던 간도독립운동사의 일단을 체험에 근거하여 술회한 책. 1919년 여름 '의민단'과 '군정서', '신민회'가 생기기 이전까지 간도의 유일한 독립운동단체였던 국민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사계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져왔던 간도독립운동의 실상을 밝혔다.

선경도서 / A5신 / 122면 / 2500원

美蘇軍縮과 東北亞

朴斗福 외 지음

미소 양국의 '중거리핵무기조약'이 상징하는 군축의 성공적 수행이 한반도와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우리의 입지를 재조명해 본 관련학자들의 논문모음. 「미소군축협상의 추이, 문제점 및 영향」 「INF타결이 일본의 미소관계 및 전략적 선택에 미치는 영향」 「미소군축이 중소관계와 중국의 핵전략에 미치는 영향」 「INF타결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 등 4편의 논문이 수록돼 있다.

평화연구원 / A5신 / 268면 / 4000원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게리 파커 글 · 요나단 정 그림

태아의 생성과정과 인체의 신비, 창조론과 진화론의 비교설명, 어린이 성교육 등의 문제를 원색그림을 곁들여 생물학적으로 쉽게 풀이한 책. 한 가정 여섯 가족이 펼치는 대화체로 엮어져 있는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읽는 가운데 인체의 신비와 인간존재의 의의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했다.

크리스찬월드 / B5 / 86면 / 5000원

폐선 3

이종한 지음

당선작인 표제작과 함께 가작인 김남석의 「하늘벽」 장옥형의 「모독」을 실고 있는 제3회 KBS방송문학상 수상작품집. 명당구리 배를 타고 새우잡이를 하는 어부의 삶을 단단한 문장과 차분한 사진 전개로 이끌어 갔다는 평을 들은 당선작 「폐선 3」과 지리산 야생 반달곰의 취재기를 엮은 르포형식의 「하늘벽」 미혼모 문제를 깊이있게 취급한 「모독」 등의 신선한 감각의 작품이 실려 있다.

한국방송사업단 / A5신 / 196면 / 3000원

어둠을 저주하느니 한자루의 촛불을 밝히는 것이 낫다

존 스펜서 지음 / 김경원 옮김

트레버 허들스턴, 비노바 바브, 나메 나야피, 아베 빼에르, 윌셔 피셔, 랄프 번치, 레오날드 체셔 등 자신을 회생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평생을 바친 7명의 이야기를 다룬 책. 각기 인종과 종교는 다르지만 인류를 위한 헌신과 희생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적인 감동을 자아낸다.

동화문학사 / B6 / 130면 / 2500원

氣 修行 身體

유아사 아스오 지음 / 박희준 옮김

심층심리학과 대뇌생리학 등의 여러 관점에서 동양적 心身論의 현대적 의미와 그 가능성을 밝힌 책. 불교 및 도교의 명상법, 藝道와 武道, 그리고 氣의 문제 등 수행을 핵으로 하는 동양의 사상적 전통 속에 내재된 제반 특징들이 상세하게 논구되고 있다. 동양종교에 대한 신체론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이채를 띠기도.

범양사출판부 / A5신 / 270면 / 3500원

現代詩人研究

金海星 지음

한국현대시사에서 중요한 위치와 의미를 갖는 시인 20인을 대상으로 한 시인론 모음. 한국주지사의 선구자로 꼽히는 김광균을 비롯

해 김광섭, 김남조, 김소월, 김영랑, 박두진, 박목월, 서정주, 유치환, 이병기, 조지훈, 한용운, 신석정, 이상, 노천명론 등을 다루었는데, 각각의 시인들의 '詩觀'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진명문화사 / A5신 / 448면 / 8000원

학술지

東岳語文論集 (제24집)

[논문] ▲공간포착과 詩의 照應法(김승호) ▲'주그며 사름'의 풀이(김영배) ▲'고 있'의 의미考(김용기) ▲丹陽지역어 연구(김정대) ▲林和詩의 변모양상에 관한 연구(류입하) ▲중세국어 이중모음의 연구사적 고찰(육효창) ▲최서해문학의 실존적 세계인식(이계홍) ▲후기중세국어의 先語末尾 '니'에 대하여(이유기) ▲한국문학사 기술방법론 연구(임성운) ▲未堂詩와 정념통어의 방법(채명식) ▲콜럼비아관창극 춘향전 고찰(배연형)

동악문학회 / A5신 / 502면 / 비매품

加羅文化 (제7집)

[논문] ▲유치환의 시세계와 그 변모의 양상(신상철) ▲김정환 소설연구(조진기) ▲김용호시의 세계체험과 그 틀(박태일) ▲南冥 曹植의 「民巖賦」 연구(양희철) ▲용기류의 날말발(김정대) [공동연구]오광대의 지역문화성 연구 ▲오광대 가면극의 지역문화성 연구(양희철) ▲「가산오광대」대사의 유기적 분석(이강욱) ▲오광대놀이의 이중구조(김영일)

경남대가라문화연구소 / A5신 / 296면 / 비매품



논문집

한국의 사회조직과 종교사상·외

한국사회사연구회 엮음



한국사회의 구체적 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과 학문의 주제적 수용·발전을 목적으로

로 설립된 '한국사회사연구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아 동연구회 논문집 다섯권(제17~21권)을 동시에 펴냈다.

사회사연구의 핵심적인 주제로 통시대적인 다양한 과제를 포괄하고 있는 사회조직과 사회사상에 관한 논문 4편을 묶은 「한국의 사회조직과 종교사상」을 비롯해, 중국·소련의 현실변화를 사회사상의 흐름에서 접근한 「중국·소련의 사회사상」, 그리고 「노동계급 형성이론과 한국사회」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현대한국의 농업문제와 노동운동」 등이 이번에 선을 보인 책들. 다루고 있는 주제나 연구방법론상의 편차는 존재하지만, 사회사와 사회사상사 및 역사사회학 분야의 연구활동을 통해 실학의 전통을 학문적으로 계승한다는 공통의 지향점을 드러낸다.

문학과학사 / A5신 / 각 200~290면 / 각 3500~4500원

사전

철학소사전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엮음



지난해 출간돼 큰 반향을 일으켰던 「철학대사전」의 자매편격이라 할 대중용 축약판 「철학소사전」이 출간돼 주목을 끌고 있다.

「대사전」의 저본들 가운데 하나였던 「철학사전」을 동독에서 국민보급용으로 축약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소사전」 제4판(1981)을 텍스트로 삼아 편역한 이 책은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과 세계관의 인식에 관심을 갖는 일반독자들의 '일상적 독서'에 유용한 참조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평가받고 있다.

우리말 자모순으로 표제어를 배열하고 그에 해당하는 한자 및 외국어를 병기한 다음 간명하고 요령있는 해설을 실고 있는데, 권말에 표제어 및 인명색인을 덧붙여 찾아보기에 쉽도록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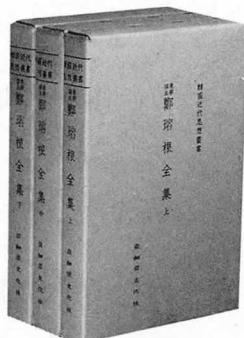
윤정윤, 박성호, 안규남, 문성원, 김다숙, 홍건영 등 대학강사급 젊은 연구자들이 번역을 맡아했다.

동녘 / B6 / 466면 / 8000원

영인본

鄭瑢根全集 (전3권)

한국학문헌연구소 엮음



동학농민전쟁 당시 익산지역 집강소의 실무자로 참여하고 후에 동학의 접주와 천도교 익산교구장 등을 역임한 정용근(1873~

1937)의 개인전집이 영인돼 나와 동학사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주목을 끌고 있다.

1895년부터 1936년까지 거의 매일같이 쓴 일기를 중심으로 정용근 스스로 자신이 쓴 글들을 정리하여 엮은 「學明德尊」 3책9권을 영인한 이 책은 동학의 교세나 동학지도자들의 사상적 특징은 물론이거니와, 進歩會와 一進會에 관한 기록 및 전북지방 향토사 연구에 유용한 생생한 자료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그 의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문학사적인 측면에서도 정용근 자신의 한시를 비롯, 오세창 등 한말 명유 의 작품 80여수가 원문 그대로 소개돼 있어 흥미를 끈다.

아세아문화사 / B5 / 각500면안팎 / 3책 5500원